

# 일자리 안정자금 이동접수센터 운영

### 군산시, 소형버스이용 3개 기관 협업 소상공인 직접 찾아가는 접수 창구

군산시 일자리담당관에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형버스를 이용한 '일자리 안정자금 이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동접수센터는 오프라인 접수처(읍면동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를 방문할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월부터 군산시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가 순차로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2018년 1월 본격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산시 3개 일자리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얻어낸 협업의 결과다.

시에서는 이동접수센터 운영을 위해 차량과 홍보물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서는 현장접수 및 상담 전문 인력과 홍보인력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가 아닌 지원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현장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특성상 연초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동접수센터는 2월부터 3월까지 주중 매일 오후시간대에 운영된다.

총 10여명의 현장상담·접수 인력이 활동하며 집중적인 홍보와 접수를 위해 일대일 상담과 동시에 현장에서 접수까지 원스톱 접수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철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장은 "이번 이동센터 운영을 계기로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오해를 없애고 소

상공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계 기관 간 협력하는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지역 내 대상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은 공단지역 30%, 수송·내운·구도심 일대 50%, 읍면지역 20%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이동접수센터는 대상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가길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 한-중 양시쌍관 스타트

### 군산시, '중한산업단지(엔타이) 홍보관' 개관

1일 군산시청에는 시범운영중인 '중한산업단지(엔타이) 홍보관' 개관식으로 한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군산시의 24년 지기인 중국 자매 도시 엔타이(엔타이)는 산둥(山東)성의 대표적인 연안도시이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는 곳이다. 또한 국가정책 중 하나인 새만금산업단지 내 조성중인 한중경협단지 선도사업인 '한중/중한산업단지' 설립 지역이다.

양 국가의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중한산업단지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중한산업단지(엔타이) 홍보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엔타이 시 소개와 중국 국민방문 전용타이 홍치(紅旗)에 들어가는 전용 타이어를 비롯해 드론, 수중캠코더, 플라넨·탄백질 마스크팩, 고량주 등의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개관식을 위해 중국 엔타이 시에서 직접 군산시를 찾은 장다이

링(張代令) 부시장은 설립부터 개관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군산시에 감사사를 표하며 "시민들이 엔타이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중한(엔타이)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014년부터 양시가 함께 구상하던 홍보관이 두 도시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중FTA를 통해 진행 중인 양국상원(兩院議員)·두 나라에 쌍둥이 산업단지에 버금가는 양시쌍관(兩市雙館)·두 도시에 쌍둥이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두 도시 관공서 내에 서로 홍보관(사무소)을 운영하게 되는 한중 최초의 지자체가 함께 꿈꾸는 양시쌍관(兩市雙館)의 국제교류 제 2막을 기대해본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교통불편 해소·합열복부권 활성화 기대

### 익산제3일반산단~합열용왕교차로간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본격 시동

익산시가 익산제3일반산단지와 국도23호선 합열용왕교차로를 연결하는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L=3.40km, B=16.50m'를 내달 발주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총사업비 125억 원(공사비 90억 원, 보상비 31억 원, 설계비 등 4억 원)을 투자해 익산제3일반산단에서 국도23호선 합열용왕교차로까지 3.40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해 오는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2013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 편입토지 248필지 5만1,900㎡ 중 152필지 3만5,860㎡에 대해 약 70%의 협

의매수를 완료하고 미개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다.

군도23호선은 지난 1980년대 편도 1차로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도로변에 석산과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평소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 도로가 좁아지고 일부구간은 굴곡, 커브 등 도로 선형불량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2013년 익산 제3일반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진출입로로 국도23호선을 경유하는 차량이 많아져 군도23호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접근성 개선과 물류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단지 입주기업과 입

주를 타진하는 기업들의 4차로 확·포장 요구가 있는 상황이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도로 여건 개선으로 익산제3일반산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 수송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하나로와 연계한 영등동 등 도심권과 북부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합열복부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이 완공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제3일반산단단지~연무교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시까지 대체도로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의회, 오늘 셉테드 시민토크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2일 오후 3시 익산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시민토크를 개최한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CPTED))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줄인 말로 건물과 가로등, 감시 장비 등을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 익산시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 의원들은 지난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입을 위해 선진지 견학, 시민간담회, 시민토론회 등을 진행하였고, 익산시에서는 2018년 사업 시행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토크를 개최하여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날 시민토크는 김수연 의원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설명, 익산경찰서 담당자의 익산시 범죄율, 사고율 등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참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토크를 공동개최하는 의원들은 "시민토크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장 출마나선 김성중 출판기념회 개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성중 익산성장터포럼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대표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김성중의 동행(同幸)이라는 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책은 김 대표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신문을 돌리던 꿈 많은 소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익산이라는 포근한 고

향에서 정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정갈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성중의 동행(同幸)' 출판기념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익산을 위한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과 각별한 애정을 담아 새로운 우리의 고향 익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시민 개개인이 모두 성공하여 행복한 도시, 익산을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동행이 되길 기대 한다"는 희망도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서동축제 D-90일, 본격 준비 '척척'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 '익산서동축제 2018'이 오는 5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익산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여느 해보다 앞서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나서 지난해 익산서동축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축제 개최시기와 중점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지난 1월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32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익산

서동축제2018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부추진일정을 조율하며 체계적인 축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서동축제는 금마저수지 수변 등 축제장의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조형물 설치, 불거리·체험거리 구간 조성 등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왕차 퍼레이드'를 전면 새롭게 기획하여 축제기간동안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관람객을 수용

하기 위해 미륵사지 광장을 메인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셔틀버스 운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간이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서동축제2018을 30만 익산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장, 최상의 행사 운영을 통한 으뜸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남은 90일 동안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익산서동축제를 문화관광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쌀 직불금 신청·접수... 4월 20일까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2018년 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으로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올해 쌀 직불금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인의 농지가 ha당 107만6,000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807천원이다.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신청기간이 8일 앞당겨져 4월 20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시 Dream Hub GUNSAN